

전문가 요청

새로운 소비 트렌드, 윤리적 소비



이 상 훈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질문 1

윤리적 제품,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최고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종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거나 브랜드 파워가 크더라도 이것이 비윤리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만들어졌거나, 비윤리적인 거래 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해치는 경영활동 등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원 낭비, 환경오염 및 동물학대의 사실을 접하면 구매를 꺼리고 더 나아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주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활동을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2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자 측면에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윤리적 소비 활성화는 소비 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 활동이 사회적, 생태적 차원의 이익 증진은 물론 소비자 자신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소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윤리적 소비활동이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를 윤리적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소비 제품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상호교류하며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제품이라도 낙후된 품질과 터무니없는 고가의 윤리적 소비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을 통해 유용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윤리적 소비를 알리기 위한 워크숍, 슈퍼마켓 투어와 같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자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윤리적 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생산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동향 & 소식

:: 국 내

제1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중견기업연구원과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2일 서울 여의도 63 빌딩에서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 CSR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축진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들의 대표적인 CSR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중견기업들이 추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자본시장 조사 직원에 '사법경찰관' 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직무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장 교란행위 등을 조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조사국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우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007403001608>

공정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결과,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학계·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가 매년 심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이행결과 모범사례는 △삼성전자 등 3개사의 수입대체 성공사례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의 수출

확대 기여사례 △코웨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 등이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714010008466>

:: 해 외

美 "돈세탁 방지만 내라" 中 은행에 첫 강제 조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는 중국건설은행과 해당 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돈세탁 방지 등 미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중국의 4대 국영은행을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준과 뉴욕 주정부는 이 은행 뉴욕지점에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연준은 돈세탁 행위 위험성이 높은 은행 고객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 내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583487>

한-칠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협의체 추진

한국과 칠레 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 관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CSR 전문가인 연세대 경영학과 박영렬 교수를 초청하여 CSR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칠레대학의 마누엘 아고신 경영대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을 만나 올해 하반기 중 한-칠레 공동 CSR 연구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칠레에 진출한 다국적 투자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칠레 내 CSR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05400094.HTML?input=1195m>

위그린, 빅데이터로 '착한 상품' 알려드려요

독일의 벤처기업 위그린은 e쇼핑몰에서 팔리는 소비재 상품이 얼마나 착한지를 평가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착한 제품에는 녹색불을,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품에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어중간한 제품에는 노란불을 보여준다. 신호등처럼 직관적으로 제품의 윤리성 지표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간편하게 착한 제품을 인식할 수 있다. 위그린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위그린 지속가능성 발자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227786>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행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호남·제주권(6월 30일, 전주), 충청·강원권(7월 2일, 대전), 영남권(7월 7일, 부산)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였다.

권익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대상기관,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 금액기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권익위는 이 밖에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스테디

윤리적 소비의 현황과 형태

흔히 착한 소비라고도 부르는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윤리적 소비는 '에너지 절감 제품 구매',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소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근거리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로컬 푸드 구매', 즐기지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를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공정 여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가격이 여전히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의 요소를 구매 결정에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값싼 제품만 선호하는 행위가 소비자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의 현황

윤리적 소비는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까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대안 활동으로 여겨지며 2000년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정무역의 성장이 대표적이다. 세계공정무역협회(FLO)에 따르면 커피와 바나나, 코코아 등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9년 약 34억 유로에서 2013년 55억 유로로 1.6배 늘었다. 한국에서도 2007년 9억 4,000만 원이던 공정무역 관련 상품 매출액이 2012년 109억 원으로 5년 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2조 7,38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영국의 약 251분의 1 수준이며, 여전히 공정무역의 인지도가 낮고 커피, 초콜릿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국제 공정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소비의 4가지 형태

윤리적 소비 관련 미디어인 Ethical consumer는 윤리적 소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할뿐만 아니라 나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과 기업 및 브랜드 불매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Positive buying

윤리적인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위해 일반 백열전구 보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전구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2 Negative Purchasing

비윤리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4시간 조명을 켜두고 닭을 학대하며 산란을 촉진하는 양계장의 계란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3 Company-Based Purchasing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의 모든 제품의 구매를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윤리적인 업체 및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Fully-screened Approach

기업과 제품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제품이 더 윤리적인지 계산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소비를 인증하는 라벨 및 평가점수를 참고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윤리적 소비의 주도층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에 대해 특히 관심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이다. LG경제연구원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인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윤리적 소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윤리적 소비를 위한 추가 지불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의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윤리적 소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이 윤리적 소비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어

윤리적 소비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윤리적 제품의 시장크기는 전체 시장의 크기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기업들이 좀 더 윤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포트

프랑스의 윤리경영 제도와 정책

프랑스의 비재무적 정보공개 관련 법안

블랑소설

블랑소설(Bilan Social)은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의 L.438-1조 규정으로 1977년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기업들에게 고용, 산업안전, 보건, 노동조건 등 총 134개의 지표들에 대한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피고용자 대표와 검토를 거친 후 정부당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랑소설에 실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가해지지 않지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달에서 1년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신경제규제법

2001년 프랑스 정부는 '신경제규제법(NRE, 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의 제정과 함께 법 116조에 모든 주식시장 상장기업이 연례 사업보고서에 사회 및 환경 이슈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NRE는 '사회적 보고'의 기재항목으로 고용정책, 근로시간과 보수, 단체교섭사항, 장애인근로자의 취업, 건강 및 안전조건, 회사 복리후생 등을 평가 공개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준수 노력, 해외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해외지역 영향평가 등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프랑스 기업그룹의 계열사에도 적용된다.

그르넬 환경법(Loi de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4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제철산업 분야

제철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내 주요 수출상품 중 하나이며 각종 철강제품들이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 등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제철산업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철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슈와 노력 역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슈 1 작업장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제품과 설비가 무겁고 위험한 제철산업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추가 설비를 채워 넣고 노후 설비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 또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 국내 A제철회사의 안전경영 강화 노력

국내 A제철회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 선정한 2014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단은 A회사에 대해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외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였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적극적인 안전부서 개혁을 통해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철소장 직속으로 안전경영총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기존 88명에서 200명으로 충원하는 등 종합 안전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안전 예산을 기존 1,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임원 내지 팀장 중심으로 야간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안전교육 강화와 심리상담실 운영도 병행하여 현장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3면에서 이어집니다.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환경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에너지·지속가능발전·해양부'를 설치하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Grenelle de l'Environnement'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4월 이 기구가 작성한 기후변화 종합 대응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신환경법안(Grenelle I) 초안을 발표하였고, 동 법안을 상·하원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5일 공포하였다.

프랑스의 사회책임투자(SRI)

2013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규모는 15조 7,130억 유로이며 유럽국가의 SRI 규모는 그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에 따르면,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SRI 규모가 크며, 유럽 전체 SRI 규모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럽의

이슈 2 환경오염 문제

제철산업은 잠재적인 환경오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지역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철업체들은 환경오염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설비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 B제철회사 토양오염 사건

2013년 국내 B제철회사의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폐놀 함유 오염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중요 오염 성분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가 전문업체에 의뢰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마그네슘 공장 내 석탄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저장탱크가 지반침하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폐놀 등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공장 주변의 하천과 땅 속으로 다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오염면적은 3만 1,419㎡, 오염토량은 13만 3,994㎥, 오염 깊이는 2~15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놀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되어있다.

이슈 3 지역경제와 상생

제철회사들은 산업특성상 자체 고용규모가 크고 관련된 하청업체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철강업체들은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생하여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사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철강회사

포항시가 국내 D철강회사의 포항공장 2천 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정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장은 고부가 제품인 헝강 및 특수강을 생산할 예정이며, D회사의 포항공장 대규모 투자는 지역의 주요 철강대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D사는 포항시와 투자협정 MOU에서 포항공장 특수강 제조설비 공사부분에 참여하는 30여개 업체 중 90% 이상을 포항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되는 3만 9천여명의 건설인력을 지역 인력으로 고용할 것을 포항시에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총 투자비의 40%인 총 900억원의 건설인력 비용이 포항시에 풀리는 낙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책임투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SRI 규모는 2003년 39억 유로에서 2013년 1,697억 유로로 지난 10년 동안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프랑스의 사회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위한 정부의 노력, SRI 관련법 제정, SRI 라벨 도입, 민간부문의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RI 펀드의 SRI 라벨

프랑스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연구기관인 Novethic은 지난 2009년 SRI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좀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관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SRI 라벨을 도입하였다. 이 라벨은 ESG 기준을 충족시키는 펀드에만 부여되며, 관련 투자 상품에 담겨 있는 ESG 정보 또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책임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성메시지

'세상을 바꾸는 윤리적 소비, 우리의 생활속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제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매장에서 구매하는 '특별한' 상품이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젠 마트나 백화점 등 가까운 곳에서도 공정무역, 친환경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비윤리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에 나섬으로써 기업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윤리적 소비, 가까운 곳에서 나 자신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One Point Lesson

Q 요즘 뉴스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돕는 '그라민-다농 컴퍼니', 요리를 가르쳐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과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입니다.

Q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형태와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간비와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5 제17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지속경영학회를 포함한 28개 경영관련학회가 참가하며, '지방화에서 세계화로: 혁신도시와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유가치창출과 동반 성장에 관한 CSV 세미나, 학회별 논문발표 등이 열릴 예정

- 주최 : 한국경영학회
-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19(수)
- 장소 : 여수 엑스포 컨벤션 & 엠블 호텔

Global Sustainability Summit

지속가능한 경영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투명성, 변화하는 음식 리테일 사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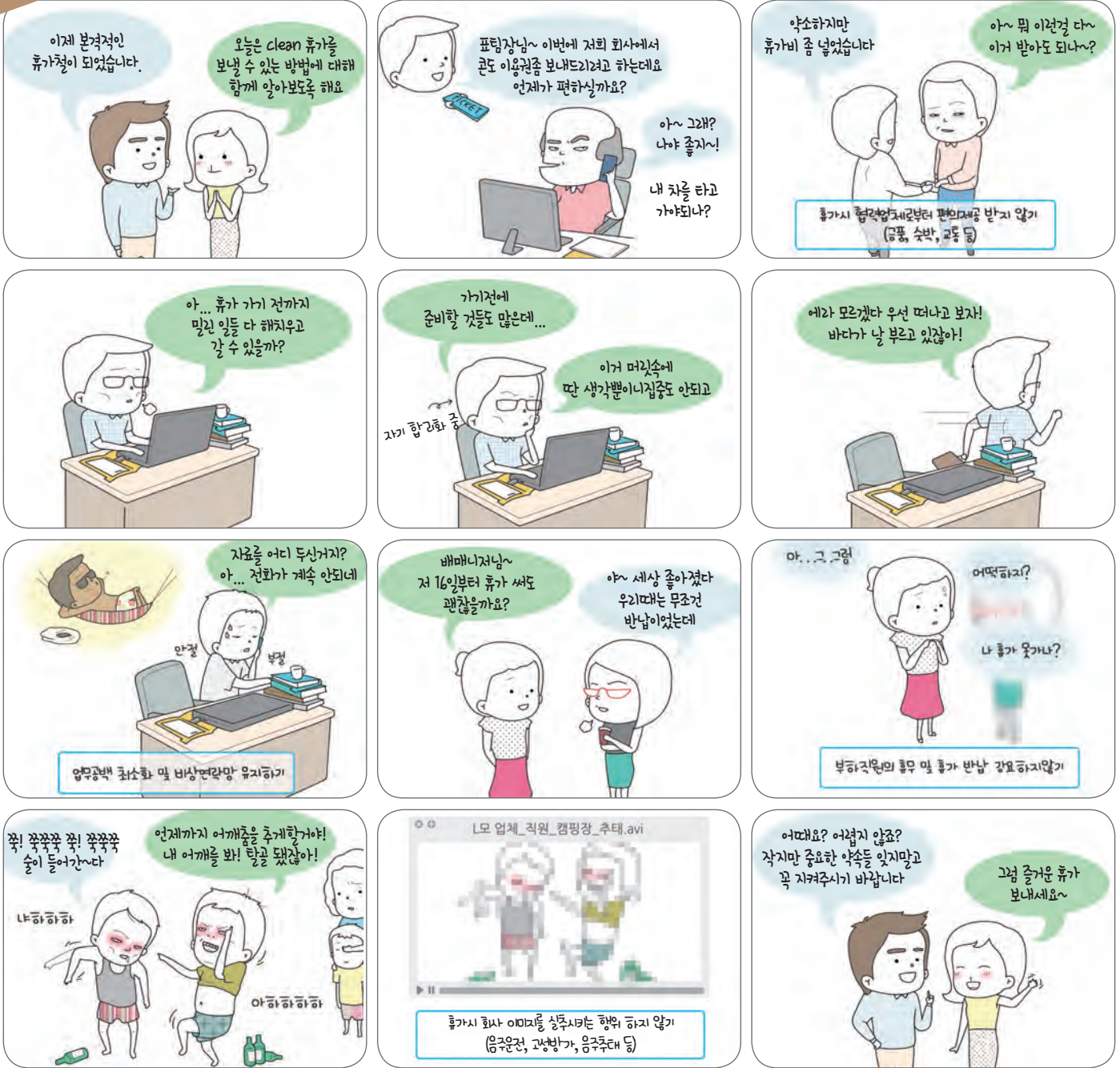
- 주최 : Food Marketing Institute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21일(금)
- 장소 : Sheraton Denver Downtown, 덴버, 콜로라도

SUSTAINABLE BRANDS 2015 RIO DE JANEIRO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의 역할을 이해하고, 사업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주최 : Sustainable Brands
-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27일(목)
- 장소 : Windsor Barra Hotel, 리우데자네이루





자료제공 : 롯데백화점

윤리경영퀴즈

다음 보기 중 윤리적 소비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 1) 공정 무역
- 2) 로컬 푸드 구매
- 3) 공정 여행
- 4) 공동 구매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2번, 직무윤리**
- **정답 제출처**(24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핸드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적어 보내주십시오(24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지는** 권지현님, 이기현님, 이창준님, 조인해님, 송학님입니다.
- ※ 보내주시는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